

대외홍보성 벗고 전문성 확보에 주력

국내서 발행하는 외국어잡지들

국제화의 시대를 맞아 국내에서 외국어로 발행되고 있는 잡지들이 잡지저널리즘의 한 영역을 차지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잡지들은 전세계 독자를 대상으로 국내 경제·문화계의 동향은 물론 정치사회적 이슈 등을 폭넓게 전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 각 방면의 국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 기능도 더욱 적극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발간된 「한국잡지연감」(89년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외국어잡지의 수효는 대략 50~60종에 이른다. 이중 잡지의 모양새를 갖추고 서점가에서 有價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15종 안팎에 불과한데,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5, 6종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87년말 잡지등록 완화조처에 힘입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들 잡지들이 아직도 종래의 대외홍보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전문지로서의 성격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심도있는 기획기사로 저널리즘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국어잡지의 대중은 역시 英字誌인데, 경제전문지가 많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외관계 중에서도 경제부문이 가장 활발하다는 점과, 대상 독자층이 다른 언어권에 비해서 두텁고, 영어문장의 구사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전문 영자지들 중에서는 선발주자로 꼽히는 월간 「비즈니스 코리아」(Business Korea)가 양적으로나 기사내용의 무게로나 가장 돋보인다. 이 잡지는 83년 창간 당시부터 경제종합지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하고, 단

순히 산업정보 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정책 및 무역동향에 관한 취재 기사들을 수록해오고 있다. 그외의 경제전문 월간지로는 「코리아 비즈니스 월드」(Korea Business World), 「코리아 이코노믹 리포트」(Korea Economic Report), 그리고 전자업계 정보지인 「일렉트로닉스 코리아」(Electronics Korea) 등이 있다.

정치·경제·레저·문화 등을 폭넓게 다루는 종합지로는 월간 「더 코리아 포스트」(The Korea Post) 「아시안 타임」(Asian Time) 「디플로머시」(Diplomacy) 그리고 코리아 헤럴드사에서 주간으로 발행하는 「코리아 뉴스리뷰」(Korea Newsreview) 등이 있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종합지로서의 규모와 질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한국의 전통문화 및 문화계 움직임을 집중 소개함으로써 관광가이드의 역할을 맡고 있는 영자지로는 국제문화협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코리아나」(Koreana)와 영안그래픽스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인 코리아」(In Korea)가 서점가에 나와 있다. 대부분의 관광가이드誌들이 호텔을 중심으로 하여 무가료 배포되고 있는데 비해, 이들 잡지는 고급화를 내세우며 광고지가 아닌 전문지로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가하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월간으로 펴내고 있는 「코리아 저널」(Korea Journal)은 한국학 및 사회과학분야의 수준높은 논문과 문학작품들을 번역 수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영어 이외의 언어로 발행되는 잡지로는 「월간 한강」(일어판)과 국제문화협회에서 영자지와 함께 발행하는 일어판 「코리아나」가 있고, 유네스코에서 펴내는 불어판 계간지



「르뷰 드 코레」(Revue de Corée)와 코리아 헤럴드사에서 주간으로 펴내는 「르 쿠리에 드 라 코레」(Le Courier de la Corée)가 상업지로서는 전부여서 심한 언어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국어잡지는 순수 상업지인 경우 평균 3~4만부 정도를 찍어내고 있으며, 국내에서 소화되는 양보다는 외국의 관계기관과 학술단체, 개인 구독자에게로 나가는 양이 압도적이다.

국내 독자층의 한정성을 극복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외국어잡지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상업적 매력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외국어 잡지들 중 흑자경영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불과 한두종에 불과하다. 「비즈니스 코리아」의 김진만차장은 외국어잡지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역시 상업적인 측면을 지적했는데, 최근들어 발간되고 있는 군소잡지들의 경우 경영난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외국어 잡지들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발행부수의 3분의2 이상이 소화되는 외국에서의 판로개척이 단탄하게

이뤄져야 하며, 그 전제조건으로 우선 기사내용이 일정한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외국어잡지계의 전문성 확보 노력과 질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잡지저널리즘의 본격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 외국어잡지의 일선 편집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고충 중 하나는, 바로 국어와 외국어 양쪽을 능통하게 구사하면서 아울러 취재, 분석력까지 고루 갖춘 전문기자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력난으로 인해 자연 심도있는 기획취재기사보다는 단순보도성 기사나 업계정보전달 쪽에 치중하게 되며, 알맹이 없는 편집내용이 곧바로 판매실적에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편집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질적인 수준과 상업적인 측면을 어떻게 적절하게 유지하느냐의 문제는, 국내의 영자 잡지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어잡지들 역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 하겠다.

—오애리 기자

三大月刊教育雑誌

14 만 초등교사를 위해 35 년간 정진해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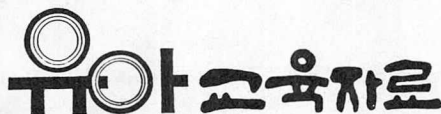
Guide-lines of Education



장학담당·교육행정담당 선생님들을 위한

教育管理技術

유치원·유아원 교사를 위한



자매지

국민학교 어린이용

학력고사 대비용·우등생의 길잡이

절대평가

교사·학부모님들의 절대적인 칭찬으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0책속부록 "즐거운 산수"

서울·마포구 서교동 418-17
 영입부 337-2800 편집부 324-9173

(株)韓國教育出版